얇으면서도 비쳐 보이지 않는 이중직 여름 옷감

일본에서는 이중직 직물 구조이면서도 바람이 잘 통하고 속살이 비치지 않는 쾌적한 여름 옷감이 개발되었다.

이제까지 여름 옷감이라고 하면 얇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직물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, 속옷이나 속살이 비치는 결점이 있었다.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겨울용의 이중직직물구조(二重織織物構造)가 많이 사용되는데, 여름용으로는 앞·뒤 두 장의 밀도가 성긴 직물을 앞쪽 직물과 뒤쪽 직물의 실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여 바람이 잘 통하면서도 속이 비치지 않으며, 세번수 실을 사용하여 직물의 무게나 두께는 보통 여름 옷감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.

사용 섬유에 있어서도 수분을 잘 빨아들이며 건조가 잘 되도록 앞쪽 직물에는 모/폴리에스테르 혼방사, 뒤쪽 직물에는 흡한성이 좋은 면이나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, 땀이 나도 곧 빨아들여 건조됨으로써 이런 옷을 입으면 쾌적감을 느끼게 된다.

모/폴리에스테르 혼방사만의 평직물이나 모사직(模紗織 imitation gauze, imitation leno : leno 조직이 아니면서도 직물 조직과 바디 통경으로 leno 조직 같은 짜임새가 있는 조직)보다도 이 조직의 직물은 약 2배 빠르게 땀을 빨아들이고 건조된다고 한다.